No.1 시니어 HMO 네트워크
선한
내일의 나를 위한 선택
센터메디컬그룹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anuary 12, 2024 Vol. 898

선교사의 부르심 붙잡고 선교사의 영성으로 사역한다

파라과이 선교사로 델 에스떼 교회 개척
남미 선교사 과반 델 에스떼 교회 출신
상파울루 교회를 거쳐 나성순복음으로



나성순복음교회의 진유철 목사는 선교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선교사의 영성으로 사역하려 노력한다.

1500명 나성 순복음교회 성도를 이끄는 진유철 목사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로 사역의 여정을 출발했다. 군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선교사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20대 젊은 나이에 파라과이로 날아갔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미지의 땅으로 갔지만, 현장 사역은 녹록지 않았다.

현지인 선교에 열중하는데 한인들이 찾아와 한인 목회를 요청했다. 그는 동포를 외면할 수 없어, 델 에스떼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파라과이 산업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파라과이로 몰려왔다. 교회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많은 젊은이가 교회를 통해 성장하며 사역자로 변신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동역자도 보내 주셨다. 10대에 파라과이로 건너온 이민자로 신학교를 졸업한 김명희 자매를 만나 결혼했다. 언어, 문화 그리고 순복음 신학 수련으로 준비된 김명희 사모는 진유철 선교사의 선교적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었다. 진유철 선교사의 사역은 날로 부흥과 성장을 거듭했다. 그 시절의 목회와 선교를 생각하면 지금도 힘이 난다. 그야말로 진심과 열정으로 사역했던 시절이다. 한인교회 사역에도 현지인 선교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역자가 배출되었다. 현재 남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의 과반이 델 에스떼 교회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유철 목사 부부는 얼마 전 브라질 사역자 세미나에서 건실한 목회자로 성장한 퓌델 목사를 만난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진 선교사가 파라과이에서 양육했던 퓌델은 원시 인디언 출신이다. 진유철 선교사 부부는 퓌델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소위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인디언 원시 문화에 젖은 그를 문명화 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 퓌델이 어엿한 목회자가 되어 자동차를 운전하며 나타난 것이었다. 너무 놀랐고 너무 좋았다. 현재 퓌델 목사는 인디언 교회를 목회하며 추장들을 선교한다. 퓌델 목사는 그 시절에 배출된 수많은 사역자 중에 하나다. 퓌델 목사 같은 분들이 남미 곳곳에서 목회자 혹은 선교사로 사역 중이다.

파라과이 사역이 한창일 때 조용기 목사님께서 갑자기 상파울루 순복음 교회 담임을 명하셨다. 상파울루 순복음 교회는 여러 문제로 어려웠고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순종하며 갔지만, 상파울루 순복음교회 상황은 쉽지 않았다. 진목사는 기도하며 전진했고, 주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다. 매주 기적을 체험했다. 상파울루의 행복한 목회도 나성 순복음교회로 이임하며 끝났다.

나성 순복음교회로 이임하며 행복한 남미 사역을 접고 미국으로 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몰랐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상파울루 성도들의 만류도 강력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성순복음교회로 향했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기도하며 해결했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다.

나성 순복음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하다. 설교전 10분, 설교후 10분 온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한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은혜받고 교회에 등록하려 할 때에 기도가 부담된다는 얘기를 한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기도가 성도와 교회를 살린다는 것을 믿기에 이 예배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온 교회 성도와 리더쉽이 기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까지 양육과 훈련이 필요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기도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모두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쉽지 않다. 나성순복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성을 공유하며 함께 순종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섬기고 나눈다. 미국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세계를 섬길 기회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나성순복음교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교지와 교단 그리고 신학교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지역 부흥운동이나 미국 부흥운동에도 헌신적으로 동참한다.

그는 지역을 섬기는 일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지금도 미주복음방송 이사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선교사의 영성으로 커뮤니티를 섬긴다. 커뮤니티를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려사항도 많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품고 실행했던 진심과 열정으로 섬긴다.

폭넓은 독서와 깊은 묵상을 통해 글쓰기에도 열정적인 그는 조선일보(LA)를 포함하여 여러 기독 언론에 고정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의 빠듯한 목회 일정을 고려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의 칼럼은 깊이가 있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각 언론사에서 인기 칼럼이다.

17년째 목회하는 나성 순복음교회는 2024년이 창립 50 주년이다. 50주년 기념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인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흥 집회를 한다. 3월 3일 저녁에는 이영훈 목사를 강사로 〈한미연합 기도회〉로 모인다. 3월 4일에는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부흥회로 모인다.

진 목사는 잘 훈련된 목회자다. 젊은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장했고, 순복음신학교, 리전트신학대학원, 베데스다신학대학원(M.Div)에서 수학 후, 휴스턴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구하는 목회자 진 목사는 지난 2015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개하는 "성령의 터치하심(도서출판 바울)"을 출간했고, 2022년에는 펜데믹 시대와 그 이후를 살아갈 영적 지혜를 담은 "팬데믹, 노아에게 묻는다(기독교문서선교회)"를 출간했다.

그는 선교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선교사의 영성으로 사역한다. 다양한 집회와 부흥회를 인도해왔지만, 선교사와 선교지를 섬기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다. 그는 크고 작은 나라별 선교사연합 집회를 15차례 인도했다. 그는 일상 목회에서 설렘, 긴장 그리고 두려움으로 파라과이에 첫발을 딛던 그 심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그것이 자신과 교회 그리고 섬기는 기관과 시대가 사는 비결임을 믿기 때문이다. 강태광 편집위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2024년 대박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 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 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 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 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더 높은 부르심 향하여” 하이어 콜링 500명 참가, 성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College Higher Calling Conference)가 지난 2023년 12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4일 동안 쉐라톤 페어펙스 호텔(Shraton Fairpex Hotel)에서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송정명 목사/진유철 목사)와 순 무브먼트 글로벌 (Soon Movement Global, KCCC USA)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PASTOR DAVID. *REV, DR, NICTOR CHAYASIRISOBHON *PASTOR HUNO THACH *PASTOR YOUNG LEE *PASTOR JIN ANN 등이 강사로 나서 ▶ 십대들이 세상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 이들 가운데 이 땅과 열방을 섬길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고 ▶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의 밑 걸음이 되어 교회의 일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컨퍼런스를 이끌어다.



2023 컬리지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가 12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4일 동안 쉐라톤 페어펙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컨퍼런스에 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이번 집회를 통하여 6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결심했고 70명은 목회자로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

하루 한 절을 통해서 보화를 발견해 볼까?



성경은 모든 만물, 인간 삶의 모든 영역, 성공과 실패, 희로애락을 총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에너지와 생수를 공급하고, 왜 이 땅에 존재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

「하루 한 절, 보화를 발견하다」 (쿰란출판사)는 LA주찬양교회의 진석호 목사가 출간한 책으로, 성경 말씀을 더 밝게,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보는 방법을 제시해서 하루 한 절의 말씀을 통해 삶의 보물을 발견하게 한다.

저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루에 성경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내가 듣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보자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건성으로 보기가 쉽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다.

저자는 “성경을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니, 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축복을 받아 살게 될 것이다. 성경만 꾸준히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가르쳐주신다.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끝까지 보면 좋겠다. 시험 삼아서 3개월을 죽 해보라고 말하는데, 반드시 성령님께서 놀라운 진리의 비밀을 송이꿀처럼 알게해 주실 것이다”고 했다.

책 서두에는 ‘꼼꼼히 QT 하는 방법’과 ‘꼼꼼히 성경 읽는 방법’을 소개하여 어떻게 성경에 접근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 친절히 설명한다. 또 샘플 꼭지와 본문 31개의 꼭지를 구성하여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찾는 법을 차례차례 따라올 수 있게 하고 있다. 진석호 목사는 “갈라디아서에서 복음과 율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 기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기를 권하고 있다. 그리고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을 이어서 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진석호 목사는 이 책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업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 토마스 맹 기자

문의: 213-434-9191(진석호 목사)


진석호 목사(LA주찬양교회)

미주복음방송의 2024 나눔On 프로젝트!



손경민 목사 초청, 2/9(금) 남가주동신교회,2/10(토)LA 주님의영광교회, 2/11(주일)얼바인 베델교회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에서는 2월 9일(금)부터~11일(주일)까지 남가주동신교회, LA주님의영광교회, 얼바인 베델교회 3곳에서 ‘2024 나눔On 희망 On’ 자선콘서트를 개최하고, 이어 2월 13일(화)에는 ‘나눔On 공개모금생방송’ 을 진행한다.

미주복음방송의 ‘나눔On 프로젝트’는 펜데믹이 발발했던 2020년부터 시작돼 지난 2023년까지 4년간 총 75만불의 후원금이 모금되었다. 첫 나눔은 이웃과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주요 긍휼단체를 지원하는 일로 시작했고 점차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아이티 난민, 튀르기에 재난 지원 등으로 지경이 확대되어 갔다. 그리고 올해 2024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곳들에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나눔On 프로젝트’는 오는 2월에 자선콘서트와 공개모금생방송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On콘서트’ 에는 〈은혜〉, 〈행복〉 등을 작곡한 손경민 목사와 The 은혜 워십팀(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 한다. 손경민 목사는 이번 콘서트에 대해 “많은 분들과 그 행복의 비결을 나누고, 현재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너머의 이들에게도 꼭 전해지길 소망한다” 는 기대를 밝혔다.

미주복음방송의 이영선 사장은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아이티 모두 큰 재난과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성도들도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한 몸 같은 지체들이 있다. 사랑도 행복도 주고 받는 대상이 있을 때 비로서 완성된다” 고 말하며 “찬양집회는 보통 티켓판매를 하지 않지만, 이번 콘서트는 자선콘서트인만큼 후원티켓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나눔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 경제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사랑을 나누며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이야 말로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 나가는 힘이 된다” 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는 2월 9일(금)부터~2월 11일(일)까지 주님의영광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 베델교회에서 개최되며, 후원티켓은 $20에 구입할 수 있다. 티켓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 (https://kgbc.com)에서 구매 및 전화문의 구매(미주복음방송: 714-484-1190)가 가능하며, LA와 OC소재 기독교 서점과 교회 서점 등에서 판매된다.

또한 2월 13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될 ‘2024 나눔On 공개모금생방송’ 에서는 손경민 목사와 The은혜 워십팀이 참여해 생방송을 이끌어 갈 예정이고, 이 날은 전화나 온라인 결제를 통해 특별헌금으로 동참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청년 섬기려 햄버거 굽기 시작하자, 온 동네가 다 온다”

기쁜우리교회 신년특별새벽기도회 김경렬 목사, 첫 시간 말씀 전해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했다. 김경렬 목사(산타모니카 한인교회)가 1월 2일에 〈은혜〉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개최했다. 특새 첫 날인 2일 강사로 선 김경렬 목사(산타모니카 한인교회)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4년간 산타모니카에서 청년들을 목회한 경험을 나눴다.

“제가 14년을 청년들과 사역했는데 오직 은혜로 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햄버거를 300개씩 청년들에게 베풀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6:38은, 곡물을 거래할 때 주인의 넉넉한 인심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작은어머니, 큰어머니가 밥을 주실 때, 밥을 쌓아 주신다. 주다(divdote:디도티)라는 단어는 받기를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뜻이다. 제가 캠퍼스 앞에서 사역할 때, 나는 청년들을 섬기려고 햄버거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노숙자, 경찰, 학생을 비롯해 온 동네가 다 왔다. 캠퍼스 경찰들도 배가 고팠는지 찾아왔다. 좋은 고기를 써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다. 인앤아웃보다 더 좋은 품질로 만들었다. 한번은, 한국 마켓에서 랍스터를 세일하길래 랍스터 50개를 구워 대접했다. 후하게 주니 온 동네 다 온다.”

예수님의 제자는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이 있는 사람

“에베소서 2:8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주라면, 다 줘야 한다. 무엇을 아끼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유함이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배고파도, 서러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배부름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에게 상처 받고 버림 받아도 영원히 풍성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울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웃음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큰 상을 받는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비교하고 머리 쓸 이유 없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교하고 머리 쓸 이유가 없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다. 어떤 종교같이, 무엇을 해야만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면 이렇게 줄까?’ 생각한다. 아니다. 이미 주셨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재림 때 완성된다. 예수 믿는 제자들만 누리는 은혜이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눅 6:37), 이 구절은 38절을 위한 디딤돌이다. 우리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잘못된 것을 방관하고 죄를 지어도 무조건 묵인하라는 것인가? 이 말씀은 잘못된 길로 가면, 비판하더라도 용서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이 담긴 꾸짖음, 영혼이 안다

“청년들이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는다. 그러면 그것을 정죄로 여기지 않고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며 혼내는지 그들이 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권면해야 한다. 우리도 은혜받은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신다. 자바에서 티셔츠 장사를 할 때, 스몰을 라지라고 속여서 파는 사장님을 본 적이 있다.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안 살아도 더 돈 벌게 해준다는 것을 믿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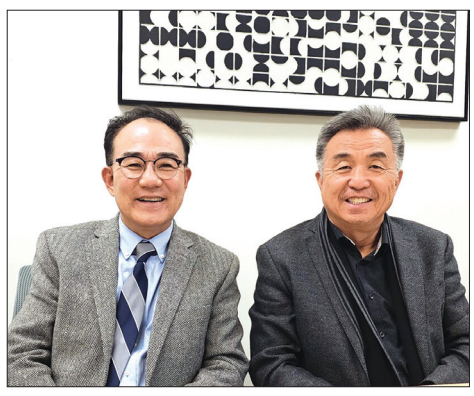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저는 우버, 리프트 운전까지 하면서 견딘다. 목사이기 이전에 남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세상을 살아 내야 한다. 새벽에 교회를 향해 출발할 때 아내와 딸을 위해 기도한다. 가난한 개척교회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밖에 없다.”

김경렬 목사는 “캠퍼스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실 분이 필요하다. 캠퍼스 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들은 기도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디 한 기자**

캠퍼스 사역 중보기도 모임: 주일 1시 30분 교회 본당(1520 Pearl street, Santa Monica)

121주년 미주한인의날 및 선포 축하식

1월 13일 오후 3시 새누리교회 본당



미주한인재단LA 회장 이병만 장로(우), 김영구 목사(좌) ⓒ기독일보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 주최로 제121주년 미주한인의날 및 제21회 선포 축하식이 오는 13일(토) 오후 3시에 새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행사는 1부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설교는 이강평 목사(서울기독대학교)가 한다. 2부는 121주년 미주한인의날 선포식 및 주요 지도자 조인식 그리고 정치인 및 귀빈이 함께하는 한국 민속팀/2세가수/다민족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이후 마지막 순서로 축하 만찬이 있다.

중국, 대만, 방글라데시, 터키, 일본 등 다민족(9개 민족) 지도자들이 선포식 및 지도자 조인식에 참여하게 되며, 한국에서도 시 의장단이 방문해서 조인식에 함께 할 예정이다.

미주한인재단 LA의 이병만 장로는 “한인의날에 다민족을 초청하는 것은, 한인이 미국에 와서 어떻게 지내왔는데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미주 한인들의 역사를 알고 싶어 하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재단 LA의 김영구 목사는 “LA의 많은 한인 단체들이 갈라져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 이번 한인의날 행사를 통해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타민족에게 하나되는 장을 보여주고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병만 장로는 “미주한인의날 100주년 행사를 남가주에서 하고 기념식을 알려야 한다고 해서 시작한 선포 축하식이 21회 째가 되었다. 지금은 미주한인의날 행사가 알려져서 전세계 한인들이 있는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행사가 25회째가 될 무렵에 미 의회에 상정이 되어 1월 13일을 ‘미주한인의날’이 공휴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선포 축하식에는 김영완 LA 총영사, 주디 추, 영 김, 최석호 의원 등 캘리포니아 주요 정치인 및 남가주 전혁직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연세조찬기도회 뉴서울호텔서 개최



미주연세조찬기도회는 6일 뉴서울호텔 죽향에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연세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연세조찬기도회 제공

미주연세조찬기도회(회장 정요한 목사)는 6일 뉴서울호텔 죽향에서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연세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요한 목사 사회로 진행된 조찬기도회는 서문준 이사장 대표기도, 부회장 최계희 권사의 성경봉독(욘4:11)과 김영길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가까이” 설교가 있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신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과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면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주는 교훈을 통해 본교는 물론 교계와 한인커뮤니티에 선한 봉사를 하자”고 했다.

이어 김영숙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장과 표정철 LA영사관 부총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한편 이번 조찬기도회에 신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김영대 목사), 모교 연세대학교 발전을 위해(지용덕 목사), 미주연세대학교 동문들을 위해(이태섭 회장),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박종대 목사), 한인커뮤니티성장과 발전을 위해(김영일 목사) 기도했다. **김민선 기자**

DMC 3개월 완성
교회 음향 클래스

- 현직 프로 사운드 엔지니어의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강의
- 교회 사역에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강의

강의 날짜
2월 6일 - 4월 23일 (12주)
매주 화요일 오후 6:00 - 9:00

강의 장소
12440 Firestone Blvd. Suite 1014, Norwalk, CA 90650

문의사항
(323) 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www.dreammediaco.org

매인강사
최병철 교수
- 한국음악 Studio 협회 회장 역임
- 86 아시안게임, 88 서울 올림픽 총 음향 감독
- 청음 레코딩 스튜디오 대표
- KBS, SBS, SM Entertainment, 일본 JPROS, 중국 CCTV 음향 총감독
- 한국 Jazz Academy 교수
- 총신대 교회음향 강의

강의 커리큘럼

강의 주제	강의 내용
1. 음향의 기본이해	▶ 음향시스템 기초구성, 피드백 컨트롤
2. 장비의 세팅과 매칭	▶ 앰프 매칭, Gain Structure, Level 설정
3. 이팩터 적용과 실제	▶ 이팩터의 종류와 사용법, 노이즈 컨트롤
4. 성가대, 찬양팀 마이킹	▶ 마이크 세팅, EQ 세팅(주파수 특성 이해)
5. 설교와 예배 스트리밍	▶ 주파수 어렌지 활용법, 영상예배 세팅
6. 콘솔 컨트롤	▶ 디지탈 콘솔 운영방법, 입체 사운드 믹싱

*매주 이론과 실습(Q&A)을 병행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DMC의 미디어 서비스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 엔지니어 없이 프로의 소리를!
- 1년에 4회 정기방문
- 연간 2회 무료 방문
- 음향기기 이력관리
- 기술상담 및 교육

2. 교회 방문 — 프로 엔지니어의 맞춤형 솔루션!
- 스피커 분석 및 세팅
- 장비 업그레이드 상담
- 유투브 기술 상담
- 음향, 영상, 조명 설치

3. Solo시스템 — 태블릿 하나로 예배준비 끝!
- 모든 교회에 설치가능
- 와이파이 기반 서비스
- 강단에서 음향, 영상, 조명을 컨트롤 합니다

4. 상담 및 교육 — 비싼 미디어장비 제대로 활용하자!
- 전문가가 직접 방문
- 유지, 관리비용절감
- 고장 발생시 신속처리
- 미디어 사용법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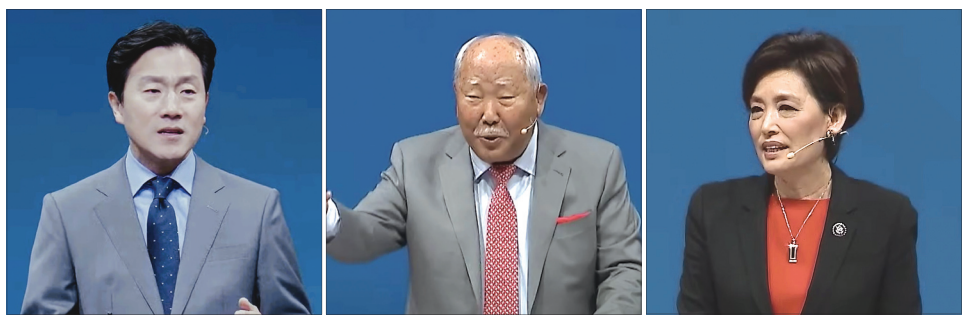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은 내게 다가오신다

신년을 맞아 남가주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일 년의 첫 주일의 첫 시간을 드렸다.

남가주 동신교회의 백정우 목사는 특새 세 번째 날 1월 5일 〈다가오시는 예수님〉(마태복음 14장 22~27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어느 누구도의 도움도 구할 수 없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설교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다.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고 이곳은 늘 고기 잡던 현장이다. 이곳에 풍랑이 이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다로 보냈는데 풍랑을 만났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신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다. 예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다.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운 제안을 한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간다."

"요동치는 풍랑만큼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요동치고 있다. 이들의 요동치는 영적인 정황은 우리 삶과 닮았다. 우리 상황과 형편은 요동친다. 어떻게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도 다윗처럼 한결같을 수 있을까? 2024년 좋은 일만 있기를 축복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요동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한결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인격을 가다듬고 결단을 하면 될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왼쪽부터 백정우 목사(남가주 동신교회), 김춘근 장로와 영김 집사(은혜한인교회) ⓒYoutube Screen Shoot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가오신다.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기쁜 일이 있든, 바다 한복판에 있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믿는 것이다.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밤 사경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다.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다. 내가 밤 4경에 바다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 복판에, 누가 그곳까지 와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아와 같이 버려진 듯한 서글픔, 두려움 가운데서도,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1월 2(화)일부터 5(금)일까지 유수연 전도사(ABC교육위원), 영김 집사(미연방하원의원), 김원 전도사(Church of Southland), 김춘근 장로(JAMA설립장, GLDI 대표)를 초청해 은혜이슬 새벽 부흥회를 열었다.

1월 5일 영 김 집사(가주 40지구 미연방하원의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막 6:45-46)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이루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신다고 간증했다.

그는 둘째 딸이 뇌종양으로 쓰러지고, 그 회복의 기간을 겪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어떻게 단련하셨는지, 어떻게 한국인 최초이자,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공화당 의원이 되었는가를 전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상이다. 믿음이란 그 믿음 따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작고 큰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다. 모든 좋은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다"라며, 모든 어려운 순간 빌립보서 4:13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간증했다.

은혜한인교회 특새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을 찾아〉(마 6:33)라는 제목으로 김춘근 장로가 부흥회를 이끌었다.

김 장로는 70년대 가방 두 개와 200달러를 들고 유학 와, 한인 최초의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치열하게 살았던 삶과, 그 간경화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사건을 전하며, 무엇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했다.

"1970년 1월에 은행에 1달러, 그게 전 재산이었다. 세 식구가 돈 1불 밖에 없었다. 유학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너희는 먼저 돈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명예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인간의 재미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거기에는 피눈물 나는 경쟁이 있을 것이다. 결국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힌다. 제가 그렇게 했다. 제가 78시간 동안 일분도 자지 않고 논문을 끝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나는 지옥에 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 주디 한 기자

시니어센터 1월 16일부터 매일 200명 무료점심 제공

LA시 노인국(국장 Jaime Pacheco-Orozco)은 오는 1월 16일(화)부터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에 매일 무료 점심지원을 시작한다.

노인들과 저소득 지역주민 200 명을 대상으로 펼쳐지는 무료급식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1 시간 동안 선착순 제공된다. 배식을 받기 위해서는 시니어센터에 나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바코드 카드를 받아야 한다,

LA시 노인국은 사전연습을 위해 지난 해 12월 21일부터 오는 1월 11일까지 목요일마다 모두 네 차례 런치박스 200 개 씩을 시니어센터에 제공하고 있다. 박스 안에는 다양한 메뉴의 냉동도시락 5 개와 우유, 과자, 과일이 들어 있다.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리면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된다.

신영신 이사장은 "지난 해 8월 LA시 노인국장의 시니어센터 방문 때 건의한 것이 5 개월 만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서 "이제 시작이다. 한인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을 계속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시니어센터는 1월 16일부터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

CMF 선교원, 신년 하례예배


2024년 새해를 맞아 CMF 선교원 온 가족들이 모여 신년 하례 감사예배를 드렸다.

CMF 선교원 온 가족들이 모여 신년 하례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1월 6일(토) 정오 CMF 선교원 회관에서 모임 참석자들은 음악 전문인들로 편성된 음악인들의 특별 연주,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모임은 김철민 장로(CMF 선교원 대표)의 사회, 김인철 목사(가나안장로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특별 찬양 순서가 진행됐다.

엄영민 목사(전 KAPC 총회장)는 여호수아 1장 8절~9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엄 목사는 "CMF 선교회가 창립 제25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주님과 동행 하면서 힘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설교했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5분 ■ 2부 오전 9시 5분
■ 3부 오전 11시 5분 ■ 4부 젊은이예배 오후 2시 | YES 청년부(본당) 한어대학부(KDC Hyssop Hall)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10분 ■ 2부 오전 11시 10분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 입니다 www.holywave.org

청년 · 대학부
■ YES 청년부: 주일 오후 2시(본당) / 금요집회: 오후 8시(은혜채플/본당)
■ 영어청년부(NEXT): 주일 오전 9시 10분 / 오전 11시 10분(KDC Hyssop Hall)
■ 한어대학부: 주일 오후 2시(KDC Hyssop Hall)
■ 영어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10분(은혜채플)(holywave.org/ecollege)

교회학교 주일 2, 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10분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사 랑 부 발달장애우 주일학교 : 주일 오전 11시(112호)
* 모든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Sa-Rang Community Church 담임목사 노창수 Rev. Chang Soo Ro, Sr. Pastor
■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Tel: (714) 772-7777 ■ E-Mail: office@sarang.com
■ 교육관(킹덤드림센터/KDC): 190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 563-2422
www.sarang.com

Center IPA MEDICAL GROUP

Center MEDICAL CLINIC

센터메디컬그룹 최초 직영 병원

센터메디컬 클리닉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만성 질환


노인성 질환


부인과 질환


예방 접종

환자 1명당 최대 1시간의 섬세한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M.D.**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Center MEDICAL CLINIC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이찬수 목사 “어머니 소천 슬프지만… 제 삶의 지휘자는 예수”

‘시급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2024년 첫 설교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분당우리교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7일 ‘시급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고전 2:1-2)’라는 제목으로 2024년 새해 첫 주일 설교를 전했다.

이찬수 목사는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보면 참 인상적인 대목이 있다. 바퀴가 사막 모래에 빠지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이 모래에 갇히는 것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발버둥치지 말고 바람, 즉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경험, 지식, 또 교만한 태도, 힘을 빼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전해졌다”며 “저도 이런 상상을 해 봤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갔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쪼개질 위험이 있고, 후임으로 온 분이 삯꾼이어서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이 목사는 “고린도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 파벌 의식이었다. 교회가 가장 위험한 게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다.”라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다. 바울이 제시하는 대안이 너무 간단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앙생활은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결단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를 원한다. 결단하고 결심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바울과 같은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며 “새해가 되면 많은 결심을 한다. 다 좋은데,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그는 “바울의 결심이 왜 인생에 유익한지 두 가지로 설명해드리려 한다. 첫째는 능력 회복의 문제”라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의지하는가에 대한 답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찾을 수 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 오해하는데, 교회가 그 오해를 풀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말이 많은 것에 비해 능력이 별로 없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각오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 변화에 있다. 이런 걸 목표 삼자”고 했다.

또 이 목사는 “바울의 결심 가진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이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의 문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건 생존, 삶과 죽음의 문제다. 2주 전 어머니 소천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가슴 아픈 그 상황 속에 반복해서 읽은 책이 있다. 아까 언급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많이 다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2024년은 분당우리교회가 제2의 전성기, 부흥을 꿈꾸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찬양의 심포니’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다. 미국은 또 고인의 장례 관을 연다. 어머니가 막 일어나실 것 같았다.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였다”며 “눈물의 장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다. 저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어머니의 부재가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나 확실하게 어머니는 제 인생의 지휘자가 아니다. 제 인생의 지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

이 목사는 “우리 삶의 지휘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악보는 성경이다. 이찬수 목사가 교회 지휘자고 악보면 교회는 망하는 게 낫다. 교회는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오늘은 새해 첫날이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아니다. 부모는 나보다 앞선 연주자지만 지휘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한다. 그리고 그분의 악보, 말씀, 성경을 가까이하기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거대한 연주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유일한 관람객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새해가 밝았지만 저절로 밝아지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은 제게 눈물과 아픔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천국에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은혜가 저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임하길 원한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생을 지휘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힘을 내 올해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맛보길 원한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안건상 목사, “미디어의 홍수 속, 침묵의 훈련 필요해”

충현선교교회는 1/2(화)~6(토)까지 안건상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신학 교수)를 초청해 ‘헤브론 경건훈련’을 진행했다. 안건상 목사는 1월 5일 〈하나님의 음성 듣기〉(왕상 3:4-15)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 전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 일들,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허투로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는 파송교회를 사임하면서 가난한 유학생으로 가장으로 살았던 때, 어린 자녀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눴다. “파송교회를 사임했다. 전도사 때부터 섬겼던 아주 오랜 관계를 맺었던 교회였는데, 공부를 계속하려면 사임을 해야 할 거 같았다.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선교사가 파송교회를 사임한다는 것은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하면서 일도 못하고 살아가야 했다. 다음 달 렌트비가 없는, 도저히 계산이 안되는 삶을 살았다. 우리 삶의 궁핍함에 아이들까지 눈치를 봤다. 어느날 식사를 하는데 둘째가 저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질문했다. 저는 그 질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 솔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부자로 살아 본 적은 없지만 건강하게 아이들이 다 컸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목하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의 훈련을 해야 한다. 세상의 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제가 나이 들어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보고 싶고 외롭다. 교수 휴게실에서 TV를 보았다. 싱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보았는데 이것을 자꾸 들으니 그 노래가 자꾸 맴돈다. 미국 생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에 와서 살지만 사실 많이 외롭다. 이 외로움을 잘 처리해야 한다. 외롭기 때문에 쉽게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유투브에 빠져 살아간다. 미국 땅에 살면서도 한국에 사로 잡혀 사는 이들이 많다. 이땅에서 느끼는 소외감 때문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다. 듣는 마음의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 눈 뜨면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고 그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증폭되어서 수많은 세상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니,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 한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고 사막으로 갔다. 움막을 짓고 사막에서 살아갔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에 가서 움막을 짓고 산다는 것 어리석은 것 아닌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며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나왔다. 그 엄청난 능력이 침묵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다.”

주디 한 기자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80%

연방 ITC : 30% 이상
쏠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SCAN ME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전기료 50~90% 절감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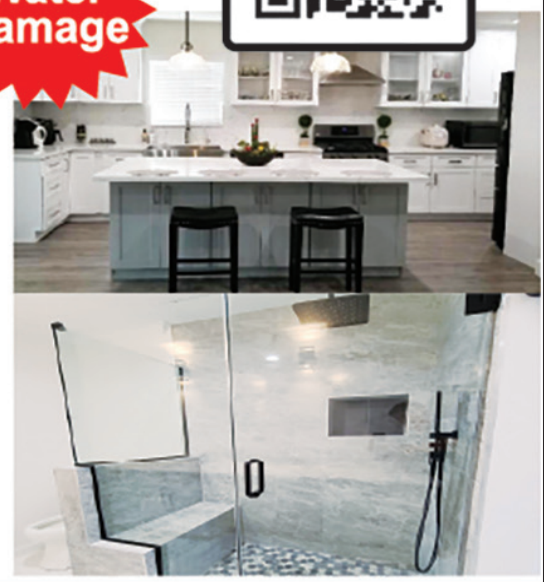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Water Damage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Lic#854389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K-Urban Builders Inc.

견적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강태광 목사의 We Bridge 교회 탐방기

젊음과 연륜이 조화로운 성암 교회

철저한 원고 설교, 열정 다해 예배 준비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성암 교회

성암교회(김요한 목사) 주일 예배는 은혜 충만했다. 젊은이들로 구성된 찬양단은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했고, 젊은이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연륜이 있는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들이 뜨겁게 찬양했다. 젊음과 연륜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당 풍경이었다. 성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매일 새벽기도는 물론, 매일 저녁에 밤 기도 시간을 갖는다.

논지가 분명한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철저한 원고설교였다. 원고를 완전히 숙지한 목사님의 성실함이 돋보였다. 설교 90% 이상이 스크린에 영어자막으로 나타났다. 성실히 설교와 예배를 준비한 흔적이 보여 더 감동되었다.

성도들의 밝은 표정, 친절함과 따뜻함이 좋았다. 마침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안내하는 권사님도, 예배실로 안내하는 성도의 미소도 정겹고 반가웠다. 식탁을 준비하는 모습도 친교 시간의 대화도 정겨움이 가득했다. 밝고 맑은 교회 성암교회에서 유일한 아쉬움은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다소 작았다는 것이다. 목회자와 기도꾼들이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여 영혼을 섬기는 젊은 교회, 성암교회의 앞날을 축복한다.




성암교회(김요한 목사)는 펜데믹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던 시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집 마당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개척했다.

성암교회(Holy Rock Church) 김요한 목사는 모태신자로 성장했고 어린 시절 꿈이 목회자였으나 부모님 만류로 바로 신학교를 가지 못했다.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도미하여 아주사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수업을 하고, LA 기쁨의 교회(이희문 목사)에서 실천 사역 훈련을 받았다. 지난 2020년 11월 1일에 성암교회를 개척한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공동체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다. 강태광 편집위원

"2024년,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새해 되길"



기독일보가 2024년 시무예배를 3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맨 앞줄 오른쪽 부터, 김성규 목사(주백성 교회), 이인규 목사 기독일보 대표, 이수호 목사(올림픽 장로교회), 김정석 기독일보 총괄 본부장. ⓒ기독일보

기독일보가 2024년 시무예배를 3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날 미주기독일보 대표 이인규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이수호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설교했다.

창세기 26:26-33절 말씀을 전한 이수호 목사는 목회자 아들로서 가난한 어린시절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을 전했다. 이 목사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를 따라하기만 했는데 이삭이 계속 축복을 받는다. 사실 저는 이것이 2세대의 축복이라고 본다"라면서 "저도 2대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이전 30년 동안의 체재에 있었던 것을 계속 평가받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2대 담임으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껏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주셨고 현재 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엘에이에 와서 한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저에게 걱정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기독일보의 임직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를 선택해, 반드시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무예배는 김성규 목사(주백성 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기독일보는 2024년 시무예배를 드림으로써 새 출발을 알리고,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하며 문서를 통해 선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제33대 오렌지카운티교협 회장 이취임식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제33대 회장 이취임식이 1월 14일 오후 4시에 미러클포인트교회에서 열린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제33대 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가 오는 1월 14일(주일) 오후4시 30분 미러클포인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이취임식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재만(미러클 포인토교회), 부회장 권혁빈 목사(씨드교회), 이창남 목사(주님의 손길교회), 이준영 목사(원더플커뮤니티교회), 신용 집사(OC평신도전도연합회 회장), 총무 조진용 목(바인교회), 서기 정우영 목사(말씀대로 교회), 회계 이성재 집사(푸른초장교회). 한편 신임 이사장에는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가 취임한다.

문의 (213)255-0296



샌버나디노 창대장로교회 사랑의 점퍼 나눔 행사 ⓒ창대교회 제공

창대장로교회, 사랑의 점퍼로 예수님 사랑 전해

샌버나디노 창대장로교회(이춘준 목사) 사랑 나눔 선교회가 12월 23일(토) 오전 8시 홈리스를 대상으로 사랑의 점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선교회 측은 "때론 춥고 세계의 전쟁으로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때 홈리스 사역 이어갈 수 있음을 감사드린다. 성탄을 맞아 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점퍼를 나누어 주고 음식 또한 나누며 예수님 사랑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美 남침례회, 쿠바서 약 5천 명 예수 영접 이끌어



서부쿠바침례회(WCBC) 산하의 지역교회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뱁티스트프레스

지난해 말, 미국 남침례회(SBC)의 단기선교팀이 쿠바를 방문해 약 5천 명의 현지 주민들을 결신시켰다고 뱁티스트프레스(BP)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침례회(Florida Baptists Convention) 지도자 8명은 서부쿠바침례회(Western Cuba Baptist Convention) 지도자들과 협력해 8일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써 4,820명을 결신시켰다. 플로리다침례회 지도부는 두 팀으로 나뉘어, 빌라 클라라와 시엔푸에고스 지역에 위치한 45개 교회 및 선교지에서 전도했다. 플로리다침례회는 1997년부터 서부쿠바침례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파트너십 기간 동안 쿠바를 여러 차례 방문한 플로리다침례회 선교 및 사역 촉진 담당자인 마일스 다우디는 "많은 쿠바인들을 만났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소망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플로리다의 제1팔메토침례교회의 담임이자 선교팀 일원인 필립 햄 목사는 "쿠바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햄 목사는 "그들은 매우 우리를 환대했고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대한 진지한 갈망을 갖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세인트 어거스틴의 앤션트시티침례교회의 원로목사인 프레드 피츠는 이번에 쿠바를 처음 방문했다. 그는 함께 일한 사람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이들 선교사들은 쿠바의 다른 지역에서 온 평신도들이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신자들이었다"고 말했다. 피츠는 "쿠바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나라인 쿠바에 매우 헌신적이었으며, 동시에 성경에 정통하고 훈련된 학생들이었다"며 "사람들은 매우 수용적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환영했고, 친근했으며, 하나님과 희망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쿠바의 교회와 사람들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마누엘 바라호나 목사는 이번 쿠바 단기선교를 갈 계획이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일들이 해결돼 참가할 수 있었다. 보인턴 비치의 웨스트사이드제1침례교회 담임목사인 그는 "이 여행은 여러 면에서 내 삶을 변화시켰다"며 "쿠바 서부의 교회는 살아있고, 건재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뿐"이라고 간증했다.

바라호나 목사는 "그곳에 있는 동안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이었다"며 "나는 계속해서 무엇이든 하고,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침례회 남동부 지역 촉진 담당자 알 페르난데즈 목사는 이번이 네 번째 쿠바 방문이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특히 "복음이 불길처럼 확산되는 증거를 봤다"고 했다. BP에 따르면, 현재 서부쿠바침례회 지도자들은 복음 전도와 영적 수확 이후 새 신자 교육과 제자 훈련에 주력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낙태, 지난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총 4,460만 건 이상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최소 5년 연속으로 세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Worldometer)'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4,460만 건 이상의 낙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nternet Archive Wayback Machine)이 캡쳐한 2023년 마지막 월드오미터 자료에 따르면, 낙태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다른 주요 원인들로 인한 사망자 수 합계를 초과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인 전염성 질병은 지난해 1,29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다. 암은 820만 명 이상, 흡연은 490만 명 이상을 사망케 했다. 음주로 인한 사망은 240만 명, HIV 또는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160만 명,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30만 명 이상이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기타 사망 원인은 독감(50만 명)과 말라리아(39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중에 목숨을 잃은 산모는 30만 명 이상이었으며, 5세 미만 어린이는 750만 명 이상이 불특정 질병과 원인으로 사망했다. 2023년에는 기아로 인한 사망자가 1만 7,000명,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80만 명 이상이었다.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23년 사망자 수는 총 6,060만 명 이상으로 측정됐지만, 이 수치에는 낙태가 사망으로 계산되지 않았다. 낙태가 포함된다면 그 수는 1억 명을 초과하며, 그 중 낙태가 4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낙태 건수는 각각 4,240만 건과 4,260만 건으로, 이는 이후 몇 년간 낙태 건수보다 약간 적었지만, 역시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다.

2023년 낙태 건수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여성건강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소송에서 미국 헌법에 낙태 권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결한 이후 첫 해였다. 이 판결은 몇몇 주에서 낙태 절차를 제한하거나 거의 대부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태아 생명 수호 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는 돕스 판결 이후 1년 반 동안 제정된 생명보호법이(법적 문제로 인해 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해) 16만 6,239건의 낙태를 방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낙태 권리 지지 단체인 '생식 권리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에 따르면, 전 세계의 가임기 여성 인구 중 35%가 낙태가 가능한 77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캐나다, 호주, 그리고 거의 모든 유럽 국가 등 서구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가임기 여성 중 25%는 사회적·경제적인 다양한 이유로 낙태가 허용된 12개 국가에 살고 있다.

김유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온리인 Only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리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4부 오후 1:0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전 9:3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GRC(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2부예배 오전 09:10
3부예배 오후 11:2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청장년/교육부서)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9:4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전 세계 종교 박해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 발표돼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은 나이지리아 북부의 한 마을 주민(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오픈도어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 구 오픈도어)가 전 세계의 폭력적인 종교 박해 사건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 '폭력 사건 데이터베이스'는 동종 최초이자 유일하게 사건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종교자유 데이터 세트"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대중들이 접근이 가능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살인, 체포, 납치, 성희롱, 강제 결혼 등 12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을 나열하고 있으며, 국가별, 종교별, 가해자별 검색이 가능하다. 또 전례 없는 수준의 검증이 가능하다.

박해에 대한 책임 있는 가해자에는 소수민족 지도자, 대가족, 정부관리, 이념 압력단체, 다자 간 조직, 민간인, 조직 범죄, 정당, 종교지도자, 혁명가 또는 준군사단체, 폭력적인 종교 단체 등이 포함돼 있다. GCR에 따르면, 2022년부터 전 세계의 폭력에 대한 보고를 기록하기 시작한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6천 건 이상의 사건을 추적 중이다.

또 5개 대륙의 폭력 추적에 중점을 두고 종교 자유 침해를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에 게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GCR의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 대표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과 신앙인들이 겪은 특정 공격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대신하여 옹호하고 보고하는 모든 사람이 이 놀라운 자료를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해당 연구는 국제종교자유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가 GCR의 자금 지원을 받아 수행해 왔다.

GCR의 글로벌 전략 및 연구 책임자인 로널드 보이드-맥밀란은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단체에 대한 폭력적인 박해가 만연하고 증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폭력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단체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또 올 봄에 발표될 'GCR 세계종교자유지수'(GCR Global Religious Freedom Index)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일론 머스크 "서구, 기독교 없으면 멸망" 트윗에 동의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이자 세계적 부호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최근 서구 문명은 기독교 없이는 멸망할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영국 래퍼 '주비'(Zuby, 본명 은주베 올리새부카 우데주에)는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서구는 기독교를 잃으면 완전히 망가진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런던에서 나이지리아 부모 사이에 태어난 기독교인이자 11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인 주비는 "이것에 대해 완전히 설명하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난 수 년에 걸쳐 생각해 보았고,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주비는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를 제거하는 것은 건물의 기초를 제거하고 그것이 영원히 서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다. 또 기독교는 '면역 체계'와 같아서, 서구에 기독교인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집단 면역의 한 형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독교를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도덕적 공백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인간 본성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머스크는 해당 트윗에 "아마도 당신 말이 맞을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해당 댓글은 170만 건의 조회수와 28,000개의 '좋아요'를 기록했다. 주비도 그의 댓글에 '아멘!'이라고 답했다. 머스크는 지난 6월 주비가 진행하는 '주비 팟캐스트'(Zuby Podcast)의 '리얼 톡'(Real Talk)에 출연한 바 있다.

CP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장하며 세례를 받은 머스크는 기독교



일론 머스크. ⓒ유튜브

와 종교에 대한 견해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했다. 머스크는 2013년 '더 오피스' 스타인 레인 윌슨과의 대화에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일생을 바쳤지만 진정으로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다"며 "말라리아로 거의 죽어갈 당시에도 기도를 게을리했다"고 말했다.

또 2021년 12월 인기 기독교 풍자 사이트 바빌론 비(The Babylon Bee)와의 인터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주인이자 구세주로 영접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대접하라' 등 예수께서 주창하신 원칙을 존경한다. 아인슈타인이 언급했듯이 난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면, 난 그분의 길을 막지 않을 것이다. 물론이다. 저는 구원받을 것이다. 왜 안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2022년 5월 창조주를 고백하라고 촉구하는 무슬림 사용자의 글에 "축복은 감사하지만 지옥이 정말 내 목적지라면 그곳에 가도 괜찮다.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의 대다수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英 감리교 남편 · 아내 용어 금지 권고, 하나님 말씀 편집”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BGEA

영국 감리교가 ‘남편’이나 ‘아내’와 같은 성별에 따른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데 대해, 미국 복음주의자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 목사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마리안퍼스(Samaritan’s Purse) 대표인 그래함 목사는 3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국)감리교회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것(남편과 아내)은 성경적 용어이며,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성경적 진리”라는 글을 남겼다.

그래함 목사는 “성경 38권 360여 구절에 ‘아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런데도) 그들(영국 감리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문화의 변덕에 맞춰 더 호소력 있게 편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 있는 것을 피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누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함 목사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2월 발표된 영국감리교회 지침에 대한 것으로, 해당 지침은 ‘남편’과 ‘아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용어가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공격적일 수 있다”며 적절한 대안으로 ‘부모’, ‘파트너’, ‘자녀’, ‘보호자’라는 단어들을 제시했다.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는 해당 지침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때로 어려울 수 있는 대화에 용기를 갖고, 때로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겸손하게 듣고, 상처를 주는 언어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듣는 방법과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지침은 “하나님의 창조가 인간의 삶에서 표현되는 방식에는 무한한 다양성이 있다”는 생각을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에 대해 “불쾌하지 않게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이 아닌 가족이나 개인 생활에 관한 것을 가정하게 만든다”고 했다. 또 ‘노인’과 같은 용어를 피함으로써 ‘연령차별’을 하지 않고, ‘인종’ 대신 ‘민족성’을 사용하도록 장려해 ‘반인종차별적 언어’를 수용하며, 개인의 이민 신분이나 영어 실력을 부정적으로 강조하는 언어를 피할 것을 촉구한다.

반유대주의적이고 이슬람 혐오적인 수사도 권장하지 않으며, 감리교인들이 ‘장애 및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을 지닌 사람들과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용어를 주의 깊게 다루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영국감리교회가 성소수자들을 포괄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고, 개인이 선호하는 대명사 등을 사용하도록 조언했다.

교단 대변인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침이 자랑스럽다”며 “이는 교회가 가정하거나 부주의하게 화를 내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일부 사람들은 이 지침이 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특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인생의 경험은 그들만의 것”이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루이 지글리오 목사 “복음으로 현대 문화에 도전하라”

루이 지글리오 목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패션 2024’(Passion 2024)에서 청년들에게 현대 사회의 신념인 자격, 자기 결정 및 개인적 권리와 복음을 대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애틀랜타 패션시티교회(Passion City Church)의 지도자인 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몇 가지 핵심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며 “첫째, 나에게는 권리가 있다. 둘째, 내가 결정해야 한다. 셋째,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 넷째,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섯째,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복음은 실제로 방금 언급한 모든 전제에 도전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에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했다.

지글리오 목사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죄로 죽은 인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며 “이 은혜가 삶에 대한 전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청중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권리나 최선의 판단이 없으며,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글리오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종교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수행하면 가능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방정식에 개입하신다. 당신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 전에 살던 당신은 허물과 죄로 인해 이미 죽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최선을 다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제도를 거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에 무거운 짐처럼 느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그 때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어떤 방법일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간극을 메워주셨다”고 했다

지글리오 목사와 셸리 사모는 1995년 ‘패션 무브먼트(Passion movement)’를 시작하여, 미국과 전 세계 도시의 학생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도록 촉구해왔다. 이 연례 행사는 18~25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글리오는 그의 메시지에서 점점 더 흔한 청년들 안에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해 다뤘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러한 걱정들을 무색하게 만들며,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때와 계획을 신뢰할 것을 권면했다. 지글리오는 수천 명의 청중들에게 십자가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하며, 이는 단순히 죄의 상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 삼은 삶의 헌신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삶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지며, 십자가에 의해 세상을 향한 사랑도 가려진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예배 1부 오전 11:30 청년부예배(목) 오후 7: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5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woorijoeu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새해 새아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福

2024년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시작하시길 기원하며
새해에도 서울 메디칼 그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가슴으로 읽는 성경 - 마태복음, 제자 되기 (2)

왕의 탄생



김 영 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어렸을 적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분들이 가끔 우리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족보를 제작하는 일을 했다. 지금도 그때 만든 족보가 나에게 있다. 거기에 내 아들의 이름까지 올라 있다. 아직 손자의 이름은 올리지 못했다.

족보는 그 집의 뿌리다. 우연히 존재하는 집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연결된 집이라는 말이다. 족보는 우리를 과거로 연결시켜준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로 연결시켰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1:1).

왜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리라는 구약의 예언 때문 이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특별한 '씨'에 관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창 22:15-18).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리라고 믿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22:42).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 다윗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나시기까지 열네 대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천여 년,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시대까지는 4백여 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시대부터 예수님까지는 약 6백여 년이다. 왜 마태는 서로 다른 기간을 똑같은 열네 대로 나누었을까? 몇가지 설이 있지만 시원한 대답들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다윗으로부터 예수, 이런 식으로 이등분하지 않고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라는 항목을 넣었을까? 그 사건과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설정하고 대답을 찾아보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 이전의 언약들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손들과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다. 소위 모리아 산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대에 이르러 꽃을 피우게 된다. 다윗은 중근동 일대에 강력한 왕국을 세웠다. 사람들은 늘 다윗의 때를 그리워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점점 빈사(瀕死) 지경에 이르렀다. 멀쩡하던 나라가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해 아들 르호보암 때 두 조각이 되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가 북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남왕국은 '유다'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주전 722년 앗수르에게 망했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역사의 교훈을 무시했다. 주전 606년부터 바벨론의 침략을 받기 시작하더니 주전 586년에 이르러 완전히 몰락하고 지도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 비록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주전 536년)만에 소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없었다.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에 이르도록 속국의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주전 166년에 시작된 마카비 혁명으로 로마에 정복당하는 주전 63년까지 약 100여 년 동안 하스몬이라는 독립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긴 했지만, 성경은 그 시절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요약하자면,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공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받고 버림당한 시간'이었다. 마태는 그 어두운 시간의 터널 끝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그리고 구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세 등분으로 나누었다. 포로 귀환 이후의 암울한 시대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조명하는 데 꼭 필요한 배경그림이었다.

김한요 칼럼

새해 결심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장 두툼한 달력 겉장을 떼고 1월의 새 아침이 밝으면 묵었던 한해를 뒤로 하고, 다시 출발하는 각오가 섭니다. 마라톤을 뛰기 위해 출발선에 몸을 앞으로 내밀며 서 있는 선수들처럼, 목표를 향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다시 성탄절까지 달려가려면 꽤 먼 것 같이 느껴지는 새해이지만 아이들은 세뱃돈을 챙기는 설렘으로 코를 박고 함박웃음과 함께 절하기 바쁩니다. 이처럼 새해는 말 그대로 '새것'에 대한 기대로 충만합니다.

다시 돌아온 새해이지만, 새해를 향한 우리의 기대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우선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하는 것은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의 문턱을 넘은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언했기에 새해에 새결심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심의 내용은 개인의 역량입니다. 어떤 종류의 새해 결심을 하는지 알아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새해 결심을 하되 그 결심의 내용물을 신앙 안에서 최대한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결심할 수 있는 현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신앙을 데우려면 뜨거운 현장에 오셔야 합니다. 몸이 추우면 불 앞에 서서 불을 쬐야 하듯, 기도하는 현장에서 영적 열기로 달궈져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맘에 안 든다고, 나 홀로 선언하는 순간,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새해에 밝아 오는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 아무리 멀어도 동이 트는 바닷가는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소신을 따라 절을 찾기도 하고 모스크를 찾기도 할 것입니다. 하물며,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성도들이 새것에 대한 기대와 결심을 촉구하는 현장으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 시대라고 하지만, 현장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현장,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에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까지 깨워 최선을 다해 나오는 모습은 열심을 넘어서 감동입니다. 못 올 이유가 만 가지라도 변명하지 않고, 피곤해도 더 일찍 일어나고, 졸음이 와도 허벅지를 꼬집으며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새벽을 깨우는 베델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결심의 내용들은 베델이 베델되는 수준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아멘!' 외치면 함께 기도하는 소원과 결심이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성큼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 주 크레스트뷰(FL, Crestview)에 소재하고 있는 새생명한인장로교회는 설립 17년 된 교회로 북미주개혁장로교단협의회(NAPARC)에 소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 산하 지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1. 청빙요건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지정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 후 목사 안수받으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 언어 가능한 분
- 미국에서 사역함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시민권/영주권)
- 기혼자로서 연령이 45세 이상 되신 분

2.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E-mail로 만 받습니다.)
- 이력서 (본인과 가족사진 포함) 필수
- MDiv.졸업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신앙 고백서 및 목회 계획서
- 추천서 (2장)

3. 보내실 곳
suk.c.kurtz@gmail.com 청빙위원회서기 서숙자 권사

4. 서류 제출 마감일 2024년 1월 31일(도착)

5. 기타
*모든 서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 드리며,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청빙하는 교역자의 사례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이전에 알려드립니다.

새생명한인장로교회 New Life Korean Church
새생명한인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최진묵 목사 / 담임목사청빙위원장 신철 장로 / 서기 서숙자 권사
5502 Old Bethel Rd. Crestvie, FL 302536

구세군 나성교회에서 Social services & Youth EM 사역자를 모십니다.

1. 사역분야 : Social services & Youth EM
2. 지원자격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분(세례교인)
2) 간단한 행정 문서를 다루실 수 있는 분
3) 구세군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
3. 사역시간
화-금 : 오전 9:00 - 오후4:00 (면접 후 변경 가능)
주 일 : 오전 9:00 - 오후3: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 이력서
5. 문 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먼저 e-mail로 본인의 이력서를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jeongsu.kim@usw.salvationarmy.org
T.(747)342-3856 김정수 사관
6. 사 례
면접 후 결정
*제출된 서류는 심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구세군 나성교회

홈쇼핑월드
창고이전 기념
창고 대방출 세일!!

세일 기간 : 2024년 01.09(화)-01.15(월)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WOW 창고 대 방출 1+1 세일!!

거제도 알로에 팜
알로에 석류꿀차
알로에 꿀차 각각
~~$9.99~~ 1+1
$9.99



무설탕
홍삼캔디
~~$4.99~~ 1+1
$3.49



안동 청아람
고춧가루
1.0kg (매운맛)
~~$69.99~~ 1+1
$69.99



지리산 도라지
홍삼청
500g
~~$69.99~~ 1+1
$49.99



한창클때 6년근
어린이 홍삼
~~$69.99~~ 1+1
$49.99



앙주 블랙 스네일
BB크림
~~$39.99~~ 1+1
$29.99



홈쇼핑월드 신제품 및 재입고 대박세일!!

당뇨에 안심인 설탕대신
스테비아
~~$6.99~~
$3.99



강화홍삼 원조
녹용홍삼 프리미엄 골드
60포 (2개월분)
~~$180.00~~
~~$120.00~~
~~$85.00~~
$65.00



*사은품: (3박스 구매시 홍삼절편 10본 무료증정)

선풍기형
할로겐 히터
~~$99.99~~
$64.99



바른세제 연구소
과탄산 소다
1.5kg
~~$14.99~~
$7.99
*1인 3개한정



자연염색 샴푸
케리케어
400g
~~$48.00~~
~~$28.00~~
$24.99



청춘 샴푸
모다모다
300g
~~$38.00~~
~~$28.00~~
$24.99



에스폴리오 히알루론산
콜라겐 앰플
250g
~~$49.99~~
$15.00
*1인 3개한정



에스폴리오 펩타이드
콜라겐 앰플
250g
~~$49.99~~
$15.00
*1인 3개한정



광동제약 저분자 콜라겐
피부엔톡
~~$49.99~~
$15.00
*1인 3개한정



창고이전 창고 대방출 사은품증정 세일!!

광동제약 무병장수
경옥고
705g
$150.00



*사은품: (홍삼절편 10본 무료증정)

몽크로스
헤어 드라이기
~~$259.00~~
~~$129.00~~
$99.00



** 사은품: (몽크로스 4구 에그 후라이팬 무료증정)

풍기소백 100% 6년근
홍삼 농축액
240g
~~$189.00~~
~~$149.00~~
$100.00



*사은품: (홍삼절편 10본 무료증정)

풍기소백 100%
6년근 홍삼 더블진액
$119.00 (1개월분)



*사은품: (홍삼절편 10본 무료증정)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tvko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팍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진유철 칼럼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라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새해의 첫 주일, 하나님 은혜와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저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인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을 7번 행한 49년을 지난 다음해, 즉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후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을 살다보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 땅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이 생깁니다. 또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식을 종으로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빈부의 차이는 심해지고, 가정과 국가에 여러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희년이란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을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배한대로 돌려주게 했습니다. 종되었던 사람들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다 해방되게 했습니다. 또 빚은 다 탕감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빚 가운데 고통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희년을 맞이하면 죽을병에 묶인 자도 해방되었습니다. 절망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소망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안식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절기인 것처럼 희년은 하나님의 통치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회복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마12:8) 희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희년과 같이 해방과 자유를 주는 사역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 한 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미움과 살인과 고통이 찾아왔고 생명도 잃고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 희년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을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 있으면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

해방과 자유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눅4:19)입니다. 문제보다도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도 문제와 속박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도 어려움과 대적은 생깁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우리를 묶으려는 악한 세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는 자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 들이고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희년의 주님을 선포하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남가주 단신

▶ 85년 전통 예일대 아카펠라그룹(Yale's Society of Orpheus and Bacchus)이 오는 13일 오후 5시 30분 윌셔와 베렌도길에 있는 임마누엘장로교회(Immanual Presby. Church)에서 1시간 반 동안 재즈, 블루스, 록엘롤 등 다양한 레퍼토리 외에 한국노래 홀로아리랑 등 4곡도 특별히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티켓은 2인 50달러로 판매한다. 문의(213)487-0100

▶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는 자녀와 청년을 위한 Worship Night를 1월 19일(금) 7시 30분에 개최한다. Higher Calling 찬양팀이 함께하며 많은 영어권 젊은이들을 초대한다.

▶ 토렌스조은교회는 창립 33주년 감사예배를 1월 21일 주일에 드린다.

▶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에서는 2월 9일(금)~11일(일)까지 "재난, 난민을 위한 자선콘서트 '2024 나눔On 희망On"를 주님의영광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 베델교회에서 개최한다. 후원티켓은 20달러에 구입할 수 있고 티켓은 미주복음방송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구매 및 전화문의 구매가 가능하며, LA와 OC 소재 9곳의 기독교 서점과 교회 서점 등에서 판매된다. 문의: (714-484-1190), www.kgbc.com

민종기 칼럼

올해는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 이사장

2024년은 어렵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격으로 레바논과 시리아의 헤즈볼라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무역 항로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분명 2024년의 시작은 전쟁이 확대되는 불안한 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미국 내에서도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뉘어 심하게 갈등하는 비상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백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는 자의식을 떨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마 5:9)라고 가르칩니다. 화평을 가져오는 "피스-메이커"(peacemaker)가 예수님의 명칭과 아주 유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mediator)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러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의 모형인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어 사마리아의 북쪽 10마일 정도 '도단'(Dothan)이라는 성읍에서 포위됩니다. 엘리야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보니, 성읍이 적에게 포위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는 불말과 불 병거를 보고 안심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접근하는 아람 군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엘리사를 따라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와 포로로 잡힙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일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포로로 잡혔다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된다' 하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여 돌려보내라고 조언합니다. 왕은 적국의 포로를 잘 대접하여 평안한 가운데 시리아로 돌려보냅니다. 평화는 그 후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제적 위기 상황에서 평화를 깨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붕 위의 기왓장처럼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반복적인 한 말씀, 곧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세상은 순종할 수 없어도, 교회와 성도는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의 평화는 첫째, 영적이든 육적이든 강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항복은 평화가 아닙니다. 둘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초윤리(super-ethics)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윤리입니다. 강한 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적을 향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선물 경제(the economy of gifts)의 실천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황금률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머리 위에 숯불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을 놀라게 하여, 바로 적이 참사랑을 깨닫고 평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서해안에서 200발의 포격을 했습니다. 남쪽에서도 400발의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군사 논리를 좇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교회가 투사처럼 되어, 예수님은커녕 평화의 선지자 엘리사의 발꿈치도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2024 미주기독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 • 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박사, 선교학철학박사,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 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쑥뜸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뜸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주님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나하나 꽃피어 -조동화 시인

나하나 꽃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목회자로 변신한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시인 조동화는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인은 시조, 일반시, 그리고 동시 등 다양한 작품을 남긴 시인입니다. 시인 조동화는 시조로 출발했습니다. 시인으로 열심히 시작(詩作)활동을 하던 조동화 시인은 지금 경주성경침례교회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동화 시인은 197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낙화암〉이 당선된 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 〈첨성대〉, 부산일보에 시 〈낙동〉」이 각각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낙화암〉 등 9권의 시집과 2권의 동시집 그리고 시조집을 남겼습니다. 이 시는 조동화 시인의 대표적인 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시를 읊조리면 저절로 힘이 나는 것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이 시를 읽은 것 만으로 힘이 나고 용기가 솟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를 사랑하고 이 시를 애송하며 이웃에게 자주 추천합니다. 이 시가 가진 아름다운 시어나 운율 그리고 문학적 표현 기법도 좋지만, 이 시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 좋습니다. 시대와 세상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좋아하지만, 희망적 희망을 바랍니다. 희망적인 희망 즉 성취 가능성이 큰 희망에는 열광합니다. 반면에 가능성이 희박한 희망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에서 희망을 일구는 사람에게는 야유나 비난은 흔합니다. 심지어 성취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희망에 건네는 따뜻한 충고조차도 실패를 전제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시 "나 하나 꽃 피어"는 희망을 가꾸는 과정을 노래합니다. 첫 연의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이나 둘째 연의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은 절망에서 희망을 심고 가꾸는 법을 말합니다. 참 희망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참된 희망은 품기만 해도 희망이고 능력입니다. 온 세상이 꽃밭이 되는 희망을 품었다면 현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희망을 심고 생명을 심어야 합니다. 생명의 희망을 심으려 하면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상이 온통 꽃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다면, 결국 온 풀밭이 꽃밭이 될 희망을 볼 수 있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결국"이라는 평범한 말을 시어(詩語)로 재생산했습니다. 이 시에서 '결국' 이란 시어가 주는 메시지는 소망의 확실성입니다. 결국은 반드시, 혹은 필연코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풀밭이 꽃밭이 되고, 결국 온산이 활활 타오를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씩 피는 꽃이나 하나씩 물드는 잎사귀가 소망의 시작을 노래한다면 결국은 성취될 소망의 완성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의 꽃을 치워야 할 상황을 만납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절감합니다. 이미 통과된 악법들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현재 준비되는 법안들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피해 타주로 이주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듣습니다. 이런 캘리포니아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미국인 형제자매들이 Pray California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남가주의 한인 성도들이 '다민족연합기도대회'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 중보 기도팀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희망의 꽃을 피우려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캘리포이나에서 희망의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습니다. 그때마다 조동화의 '나 하나 꽃피어'를 읊조립니다.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될 날을 소망합니다. 또 온 산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은 언제?

2024년 새해를 맞은 가운데, 개개인의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각 교단·교회별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등 다양한 교회 절기를 공유하고 있다.

1월 6일은 주현절(主顯節, Epiphany), 1월 7일은 주님의 수세주일이었다. 공현절(公現節)이라고도 불리는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공생애를 개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월 11일 산상변모주일(Transfiguration of the Lord)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2024년 재의 수요일은 2월 14일이며, 사순절 첫 주일은 2월 18일이다. 사순절이란 '40일'이라는 뜻으로,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한다. '재의 수요일'은 '참회의 수요일'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렇게 불린 이유는 이날 예배에서 재(Ash)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재'는 참회와 회개, 유한성, 정화와 순수, 농경문화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 등을 의미한다.

3월 24일은 종려주일(棕櫚主日, Palm Sunday)이다. 부활절을 1주일 앞둔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돼 있다(마 21:1-11, 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인 3월 25~30일은 고난주간(苦難週間, passion week)이며, 3월 29일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聖金曜日, Good Friday)이다. '수난주간(受難週間)'으로도 불리는 고난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다.

3월 31일은 부활절(復活節, Easter)이다. 일부 동방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춘분(春分) 당일 혹은 그 직후 보름달(滿月) 이후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있다.

5월 5일은 어린이 주일로, 미국 감리교와 미국 장로교는 이를 6월 둘째 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한국교회는 6월 첫 주일이었다가 1925년부터 5월 첫 주일에 지키고 있다.

5월 12일은 부모주일(父母主日, Parent' s Sunday)이다. 미국에서는 1914년 미국 상원의 결의와 윌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어머니주일이 공포됐다. 한국교회는 1930년 6월 15일에 구세군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주일을 지켰고, 1932년 감리교 연합연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주일'로 지킬 것을 정식 결의한 후, 다른 교파에서도 5월 둘째 주일을 '부모주일' '어버이 주일' 또는 '어머니 주일'로 지키기로 했다.

5월 19일은 성령강림절(聖靈降臨節, Whitsunday)이다. 성령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행 2:1)이다. 성령강림절은 성탄절·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꼽힌다. 특히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기념되고 있다. 성령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五旬節, Pentecost)'과 같은 날이기도 하다.

7월의 첫 주일 7월 7일은 '맥추감사주일(맥추감사절, 맥추절)' 이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후 7주째 지켰다고 해서 '칠칠절(七七節, 출 34:22; 신 16:10)'이라고도 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모맥 추수가 이뤄진 직후 행해지던 히브리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맥추절을 본딴 것이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의견도 많다. 요즘은 보리 농사를 잘 짓지 않을 뿐더러 도시 인구가 훨씬 많아,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늘고 있는 추세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은 교회에 따라 10월 마지막 주부터 11월 셋째 주 사이에 기념예배를 드린다.

11월 24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Christ the King)로, 1925년 교황 피우세 11세 때 처음 제정됐으며 1926년 처음 시행됐다.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자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로 배치됐다.

12월 1일은 대림절(降臨節, Adventszeit)의 첫 주일이다. 대림절이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대림시기, 대강절, 강림절로도 불린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하기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다.

12월 25일은 성탄절(聖誕節)로 말 그대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다. 성탄절이 보편적인 절기로 굳어지게 되는 것은 4세기경으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확정하고 성탄절로 지켰다.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절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4
중·고자녀를 위한
정체성 회복 여름캠프

부모가 꼭 권하고싶은 기독교육캠프

기간 : 2024년 6월 17일(월)~7월 12일(금)까지
장소 : 한국 충남 논산 소재 벨국제아카데미
대상 : 미주 한인 2세 자녀들($1,700/1인)

캠/프/내/용

1. 크리스천/나의 정체성교육
2. 한국인과문화 정체성교육
3.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





상세안내는 기드온동족선교 홈페이지와 큐알코드 검색

■ 등록신청 : www.gideonbrothers.org
■ 벨국제아카데미: http://bellschool.or.kr

www.GideonBrothers.org

GBMW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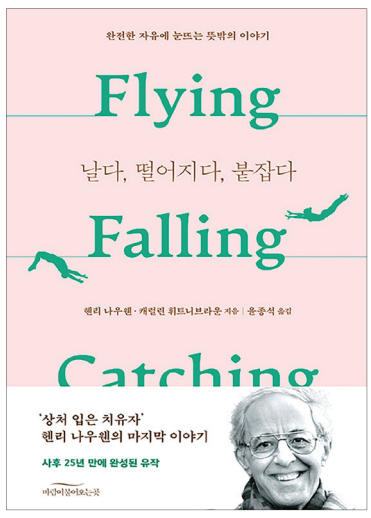
BELL INTERNATIONAL ACADEMY

문의 : T.(425)775-7477 gideonbrothers100@gmail.com

협찬 : 미주기독일보

[내어줌의 공동체]

참된 공동체는 자신을 내어줍니다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헨리 나우웬, 캐럴린

휘트니브라운 | 윤종석 역 |

바람이불어오는곳 | 380쪽 | 19,500원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웬의 마지막 이야기
사후 25년 만에 완성된 유작

나를 내던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평판, 소소하게 누려왔던 안정을 내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왠지 비효율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치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누군가에게 완전하게 수용 받고 싶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었을 때, 우리는 수용 받고 사랑을 누립니다.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하버드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지적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라르쉬 에이브레이크로 향합니다. 자신의 명성은 이 공동체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로 인정받고 수용받는 곳이었습니다. 나우웬은 이곳에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영적 통찰을 얻습니다. 참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왔던 것을 보다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나우웬은 1996년 9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숨을 거둡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글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가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책은 로드레이 공중그네 곡예단과의 만남에 기초한 논픽션 창작물이었습니다. 기존 신앙서적과 결이 다른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선한 영적 통찰이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캐럴린 휘트니-브라운(Carolyn Whitney-brown)은 라르쉬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거주했던 캐나다 작가입니다. 헨리 나우웬 유작 센터 출판위원회에서는 나우웬의 미간행 원고의 창작을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캐럴린은 나우웬의 미완성 원고들을 최대한 살려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Flying, Falling, Catching)를 완성했습니다. 나우웬의 사후 25년 만에 우리는 다시금 그의 글을 마주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웬은 우연한 기회에 서커스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때 로드레이 공중그네 곡예단의 공연 또한 보게 됩니다. 위험해 보였던 공연이었기에 처음에는 불안인 줄 알았는데, 나우웬은 이후에 그것이 엄청난 전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자신을 감동시키고 매료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로부터 나우웬은 공중그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자유, 신뢰, 열정, 팀워크…. 아직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에 강하게 이끌립니다.


플레이그라운드 AI가 자체 제작한 공중그네 그림. ⓒplayground.com

여러 저술과 많은 강의로 유명했던 그였지만, 어린아이 같은 팬의 마음으로 나우웬은 공중극예단을 대합니다. 나우웬의 진심과 따뜻함은 어느새 로드레이 공중그네 곡예단에게도 전달됩니다. 어느새 그들은 친한 친구 혹은 가족과 같이 지내게 됩니다.

나우웬은 공중그네 곡예단의 공연뿐 아니라 연습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공중그네를 보여주던 로드레이는 나우웬에게 이와 같이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은 날아야 하고, 잡는 사람은 잡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은 잡는 사람이 알아서 해 줄 것을 믿고 양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우웬에게 깊게 각인됩니다. 참된 신뢰는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 놓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모두 내어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헨리 나우웬의 마지막 발걸음을 이 책을 통해 봅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갑작스러웠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참된 공동체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참된 공동체는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 행위는 상대를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됩니다. 비로소 공동체는 비상합니다. 참 자유를 누립니다.

모중현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명예편집위원

목회자의 새해 사역을 위한 10가지 기도

미국 기독교 리소스 웹사이트인 '처치앤서스(Church Answers)' 회장인 샘 레이너(Sam Rainer) 목사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에 '새해를 맞이하는 10가지 목회 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다음은 칼럼의 주 내용.

1. 숫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열정

당신은 숫자를 추적하고 지표를 알아야 한다. 물론 각 숫자는 사람을 나타낸다. 하지만 당신은 숫자를 목자처럼 돌보지 않는다. 만일 사람보다 숫자에 대해 신경을 쓴다면, 지금이 새로운 태도를 취할 좋은 때이다.

2. 향수에 대한 안락함보다 성령 충만.

나는 성소의 공간을 깊이 사랑한다. 향수는 강력한 감정이지만,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3. 내부가 아닌 외부로의 전진

당신의 교회가 내부로 향하는 대신 외부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갖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전도를 위한 경각심을 주시길 기도하라.

4. 외로운 사람에 대한 연민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립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당신의 교회가 긍휼을 베풀도록 기도하라.

5. 환대를 위한 새로운 방법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환대를 보여주는 교회는 너무 적다. 환대는 외부 사람에 대한 관용과 희생이 따른다.

6. 노년층을 위한 강화

나이 든 세대가 교회에 더 자주 온다. 그들의 이러한 신실함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7.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 지역 교회는 사역의 최전선이다. 악의 영적 세력과의 전투에서 교회는 참호(trench)이다.

8. 방문자에 대한 세심함

방문자들은 영적인 인도가 절실히 필요하거나, 연결을 원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볼 질문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첫 방문의 용기를 낸 이들에 대한 민감성을 갖도록 기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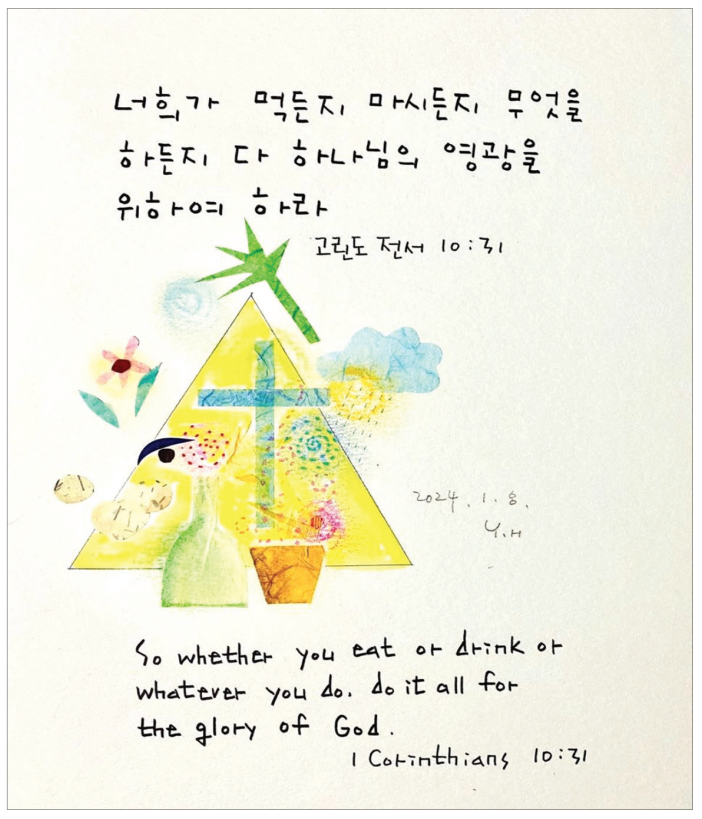
9. 의심과 질문에 대한 상냥함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의심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상냥함을 갖도록 기도하라.

10. 교회 지도자들의 정신, 영적, 정서적 건강 지난 몇 년 동안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사람들이 도움을 찾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간구하라.

김유진 기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마약왕’ 이던 인도네시아 청년, 예수 믿고 전도자로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가 마약상으로 활동하다 예수님을 믿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 청년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메흐프리(Mehfri·21)는 성경을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의 한 성경학교에 등록했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숨으려고 성경학교에 등록한 것이다.

그는 VOM 사역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려고 성경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었다. 사실 저는 성경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에게 마약을 팔아 돈을 벌 생각만 했다”고 말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에 따르면,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려던 메흐프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현숙 폴리 대표는 “메흐프리는 성경학교에서 몇 개월을 보낸 뒤부터 3년간 코카인과 엑스터시(마약의 일종)를 판매한 후 체포돼 감옥에 갇히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매주 금요일마다 감옥을 심방하던 어떤 목사님이 메흐프리에게 성경책 한 권을 줬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메흐프리는 성경학교에 다닐 때 관심을 갖고 들었던 강의 몇 가지가 기억났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를 어루만져 준 말씀이 되었고 그 결과 주님에 대한 메흐프리의 마음도 열려지게 됐다”고 전했다.

메흐프리는 VOM 사역자에게 “저는 로마서 10장을 읽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평소에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메흐프리의 아버지가 힘들게 돈을 마련하여 아들의 보석금을 지급했고, 메흐프리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성경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성경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제 가슴에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메흐프리는 학교를 졸업한 후 필리핀의 민다나오(Mindanao)섬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한 가정교회를 섬겼다.

메흐프리는 곧 세 가정으로 이루어진 가정교회에 합류했다. 서로 돌보며 지원할 뿐 아니라 합심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교회였다. 그는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농부와 어부들이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2년 동안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저는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민다나오섬에서 그 가족들과 2년을 보낸 뒤, 메흐프리는 다른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으로 이주했다. 메흐프리는 성경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전도에 더 구체적으로 집중했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그 성경학교 학생들이 근방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메흐프리는 보르네오 서쪽 지역에 있는 동안 이슬람 학교 학생들과 우정을 쌓았고, 그들이 한때 자신을 옭아맸던 파괴적인 마약의 함정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마약 반대 단체를 시작하기도 했다. 메흐프리는 마약 반대 메시지를 학생들에게 전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도 조심스레 전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몇 개월 후 한 학생이 메흐프리 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학생은 ‘자비’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메흐프리에게 말했다. 메흐프리는 그 학생의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 학생을 따라 약속 장소인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 청년 세 명이 갑자기 나타나 메흐프리를 구타하기 시작했다고. 메흐프리는 맞서 싸울까도 생각해 봤으나, 함께 간 기독교인 학생이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해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피했다. 메흐프리는 입에서 피를 흘리며 근처의 교회로 피신했고, 그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를 치료해 준 후 성경학교로 데려다 줬다. 이후 6개월 간 메흐프리는 가능한 한 학교에 머물면서 공부를 마치는 데 주력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그는 졸업 직후 정수기 판매 회사에 취업했고, 학교에서 만난 젊은 여성과 결혼했다. 2018년에 첫 아이를 출산한 두 사람은 함께 무슬림 마을에서 하루에 5명에서 10명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메흐프리는 성경학교 학생이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움”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2016년 메흐프리는 무슬림 초등학교의 한 교사와 우정을 쌓았다. 그는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만나 예수님과 꾸란에 대해 토론한 뒤에 그 교사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다.

얼마 후 그 교사의 집을 방문한 메흐프리는 오토바이에서 채 내리기도 전에 그 교사의 아들과 마주쳤다. 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성경을 준 사람이 당신이냐”고 물었고, 메흐프리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뒤에서 막대기를 든 세 남성이 그를 공격했다. 그는 눈에 부상을 입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메흐프리의 2살짜리 딸은 아빠가 부상당한 몸으로 도착한 것을 보고 힘내라고 격려했다고. 현숙 폴리 대표는 “메흐프리의 딸은 ‘저를 위해서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계속 간직해 주세요’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이 말은 딸이 아빠에게 배운 말이었다.

메흐프리는 자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는 새로운 지역에 도착한 이후 10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6명에게 세례를 줬다. 그는 “박해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며 “예수님이 모범이고 본보기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더 많은 박해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메흐프리는 어린 딸이 부탁한 대로, 주님을 위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다. 메흐프리는 모든 대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전에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지켜 주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인내와 지혜로 한해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자”

지난 1월 8일(월) 오전 10시, 임마누엘 침례교회(한충호 목사)에서 미남침례회 남기주지방회 사역자 신년하례회가 개최됐다. 목회자, 선교사, 사모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 선교 특강, 식사 그리고 윷놀이로 진행됐다.

연초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이 참석했고 임원들의 알찬 준비로 강의와 교제가 이루어 졌으며, 풍성한 선물을 나눴다.

남가주 지방회장인 서종학 목사(파사데나 주님의 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민승배 목사(조은교회 Faith Chapel)가 기도하였고 한충호 목사(임마누엘 침례교회)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으로 〈인내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한충호 목사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인내와 지혜로 한해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자고 선포했다.

2부에는 미남침례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국제 선교부(IMB) 소속 에스라 배 선교사가 미 남침례교가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을 소개하고 선교사 지원에 관해 설명하며, 지역 교회의 선교 동참의 중요성을 알렸다. 그는 한인교회의 인적, 물적 역량이 세계 선교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침례교의 풍성한 자원을 활용하고 효과적인 선교에 동참하자고 권면했다.

이어서 임마누엘 교회 봉사부가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고 온 참석자들이 윷놀이에 참가했다.

김민선 기자


지난 1월 8일(월) 오전 10시, 임마누엘 침례교회(한충호 목사)에서 미남침례회 남기주지방회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사모 40여명이 모여 신년하례회 시간을 가졌다. ⓒ미남침례회 제공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
취임 감사 예배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일시_ 2024년 1월 21일(주일) 오후 4시

장소_ 멜리데교회(MELITA CHURCH)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213. 820. 0003

연락처: 310. 706. 7721 (진건호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 증경회장



1대 故박용묵 목사 | 2,3대 故신현균 목사 | 4대 故조용기 목사 | 5대 故이만신 목사 | 6,7대 故정석홍 목사 | 8대 故김동일 목사 | 9대 오관석 목사 | 10대 故정운상 목사 | 11대 故김진환 목사



12대 권동현 목사 | 13대 故이호문 목사 | 14대 지 덕 목사 | 15대 故김두환 목사 | 16대 피종진 목사 | 17대 김상규 목사 | 18대 배동윤 목사 | 19대 김충기 목사 | 20대 故장광영 목사 | 21대 박태희 목사 | 22대 이태희 목사



23대 이종만 목사 | 24대 한영훈 목사 | 25대 故허재호 목사 | 26대 故정옥현 목사 | 27대 박기창 목사 | 28대 노태철 목사 | 29대 이용규 목사 | 30대 강풍일 목사 | 31대 이능규 목사 | 32대 김수읍 목사 | 33대 최재우 목사



34대 엄기호 목사 | 35대 엄정묵 목사 | 36대 유중현 목사 | 37대 故장대영 목사 | 38대 심원보 목사 | 39대 故이남웅 목사 | 40대 장희열 목사 | 41대 김 조 목사 | 42대 전용범 목사 | 43대 정도출 목사 | 44대 송일현 목사



45대 김정훈 목사 | 46대 최영식 목사 | 47대 장향희 목사 | 48대 양명환 감독 | 49대 윤보환 감독 | 50대 임준식 목사 | 51대 전태식 목사 | 52대 변권능 목사 | 53대 정여균 목사



이사장 송일헌 목사 | LA지부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 LA지부 상임회장 진건호 목사 | LA지부 사무총장 이춘구 목사

■ 55대 실무임원



직전대표회장 이종선 목사 | 대표회장 박승주 목사 | 상임회장 이승현 목사 | 총사업본부장 이 길 윤 목사



교육회장 김명준 목사 | 해외회장 오종설 목사 | 섭외회장 오상건 목사 | 국내선교회장 박 인 목사 | 연수원장 이광택 목사 | 성회본부장 곽영민 목사 | 총강사단장 유동곤 목사 | 신학회장 송기배 목사 | 실무회장 정금열 목사 | 상임부회장 성두현 목사

상임총무 유무한 목사 | 상임부총무 윤요셉 목사 | 국내총무 국균호 목사 | 해외총무 김승오 목사 | 신학총무 유희종 목사 | 홍보총무 임원석 목사 | 선교총무 송창호 목사 | 교육총무 김연찬 목사 | 기획총무 여한연 목사 | 성회총무 백병국 목사

섭외총무 오정두 목사 | 운영총무 박준호 목사 | 연수총무 백권재 목사 | 서 기 김동호 목사 | 부서기 최현민 목사 | 회 계 김용한 목사 | 부회계 임성환 목사 | 감 사 정운주 목사 | 감 사 전희종 목사 | 감 사 유병삼 목사